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31

괴를 부린 발람

(민수기 22:36~25:3)



“오, 그래! 발람이 온다고? 어디냐, 어디야?”

모압 나라의 발락 왕은 허둥지둥
예언자 발람을 찾으러 나갔어요.

**“발람, 내가 많이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온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주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많은 걸 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 말을 못 믿은 게요? 헤헤헤.”**

오는 길에 천사에게 혼쭐이 났던 발람이 대답했어요.

**“발락 왕이여, 제가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왕을 돕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할 뿐이지요.”**

하지만 발락 왕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큰 돈을 주면
발람이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발락 왕은 발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이 내려다보였죠.

“자 자 발람, 그대가 시킨 대로 여기에
제단을 만들었소.
제물로 수송아지와 숫양도 준비했다오.
예언자께서는 마음 편~히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게요. 헤헤헤.”

발람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발락 왕 앞에서 말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고
아주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 말을 들은 발락 왕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뭐, 뭐라? 내가 방금 잘못 들은 건가?
이보시오 발람, 뭔가 착각을 한 거 같은데
나는 당신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
‘축복’하라고 한 게 아니오!”**

그러자 발람이 말했어요.

**“예,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에헴.”**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의
다른 쪽이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려갔어요.
그곳에도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 놓도록 했죠.

**“발람, 우리 좋게 좋게 합시다. 여기는 아까랑 풍경도
좀 다르니 제대로 할 수 있을게요. 헤헤.
자, 여기 준비가 되었으니 마음껏 저들을 저주하시오.”**

발람이 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들소처럼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어떠한 마법도, 어떠한 주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사자처럼 강한 민족이거든요.”**

듣다 못 한 발락 왕이 화가 잔뜩 나서는 말했어요.

**“시끄럽다! 발람,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요?
아주 축복도 축복도 이보다 좋은 축복이 없구만!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흠흠. 왕이시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화를 내긴 했지만
발락 왕은 발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발람을 구슬렸어요.

“발람, 우리 둘 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다.
저~쪽에 가면, 더 괜찮은 곳이 있소.
누가 압니까? 거기서라면 당신의 하나님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말어요.
자, 자. 한 번만 더 가봅시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왔어요.

**“오, 이스라엘. 너희의 집은 강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처럼 멋지구나!
이스라엘은 어떤 적이든 물리칠 것이며
누구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도리어
그자가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제, 발락 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발람에게 달려들었죠.**

**“이 자가 보자보자 하니 말이야
발람, 너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질 기회를
네 발로 차 버렸다.
어리석은 놈, 당장 내 땅에서 떠나거라! 에잉....”**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발람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값비싼 금은보화가 아른아른 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발락 왕이 약속한 선물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악삭바른 발람은 한 가지 괴를 냈답니다!

“저... 발락 왕이시여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방법? 어디 말해보아라.
이번에도 나를 가지고 놀면 내가 가만 두지 않을테니”

**“하나님께서서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해도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믿도록 잘만
꼬드킨다면 굳이 제가 저주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벌하실 것 입니다!”**

그 말에 발락 왕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서, 당장 모압의 여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게
유혹하도록 시켰죠.

발람의 나쁜 괴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모압의 여자와 결혼하고
그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에
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잊어버리고
크나 큰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구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발락 왕의 뜻대로 된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발람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훗날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역시, 목숨을 잃게 돼요.

간사한 괴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셈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도록 괴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